

전주시의회 의원들 각양각색 목소리

“전주-김제-완주 특별연합 구성하자”

전주시의회에서 전주·김제·완주 특별연합 구성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짚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국·이보순·정삼길·김학송·전운미·최서연·신유정·최명철 전주시의원은 14일 제39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장치 마련 등 각종 지역 문제를 공론화했다. 당장 이국 의원은 전주·김제·완주 특별연합 구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부산·율산·경남, 충청권 등 곳곳에서 발전전략으로 메가시티 조성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전북만 소외되고 있다”면서 “전주시와 완주군에 김제시를 더해 가칭 전주·김제·완주 특별연합을 구성하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별연합을 구성해 공통의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이후 완전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보순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에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면 공간 구조상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실태조사를 실시해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세부지원계획을 수

집주차차 만연하고 주거지역 야간 주차공간이 왜 부족한지 그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공정성 확립 및 성숙한 시민의식 홍보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기준을 마련하고 주차단속지역 확대 △주차장 안내시스템 구축 △공영주차장 유료화 정책 적극 검토 등을 제안했다.

그 외 김학송 의원은 마을버스 바로온의 확대·개선, 전운미 의원은 ‘착한 임대인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최서연 의원은 ‘청년층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신유정 의원은 ‘청년 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최명철 의원은 ‘전주시 인권담당 부서 독립성 보장’ 등을 언급했다. /뉴시스

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충전시설 안전장치 마련 등 지역 문제 공론화

화재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는 근본적으로 전기로 인한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과충전과 급속충전, 외부충격, 고온 상태에서 폭발 위험성이 있고 화재 위험이 높다”면서 “민약 지하주차장

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삼길 의원은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운영과 주차환경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주시 차량 등록대수 대비 주차공급률이 100%를 넘어섰다”면서 “여전히 불

“제5 경마공원 유치, 전북발전 견인하자”

김희수 도의원 “관광자원 연계 복합시설로 구축하면 효과적”



전북의 말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충청과 호남지역에만 없는 경마공원을 전북에 유치해 지역발전을 꾀하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은 “말산업은 승마와 경마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 산업으로 미래 국민소득 증가와 의식 수준 향상에 비례해 그 성장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이라면서 “그 어느 지역보다 말산업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우리 전북에 제5 경마공원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견인하자”라고 주장했다.

김희수 의원은 “전북은 말산업과 관련해 전국 4위 규모”라면서 “2018년 대한민국 제5 말산업특구 지정으로 그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수 한우마사지, 남원 경마축산고, 기전대 말산업스포츠재활과와 말산업복합센터 등 전문인력양성 인프라까지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그는 또한 “2019년 우리 의회가 전라북도 말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전북 말산업육성과 지원체계 또한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김희수 의원은 “최근 경북 영천군에 제4 경마공원 조성을 일리는 착공식이 이달 30일에 예정되어 있다”라면서 “사업비만 3,000여억에 넘게 투입되고 경제파급효과 1조8,000억, 고용효과 7,500명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북의 말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충청과 호남에만 없는 경마공원을 우리 전북에 유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경마장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승마 재활치료, 체험, 레저와 휴양시설 등 종합적인 경마공원을 유치해 전북 관광자원, 새만금 등과 연계하면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희수 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전북에 제5 경마공원을 유치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시청과 새로운 대안을 적극 제시할 수 있는 사업추진단 설립 등 적극적인 방안을 전북도가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수 기자

전주시의회, 학폭 대처 지자체 역할 정책 토론회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14일 이남숙 복지환경위원장과 최지은 의원 주도로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의 진행하에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의 발제에 이어 박찬일 학부모 대표와 청소년 전문가 홍문기 박사, 관계 공무원 등의 열띤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역사회의 관심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등 청소년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의회가 14일 이남숙 복지환경위원장과 최지은 의원 주도로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명품 삼천 천변길 조성 추진 방안 모색

최형열 도의원, 우범기 전주시장과 간담회 가저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 더불어민주당)은 전주시청을 방문해 우범기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명품 삼천 천변길 조성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최형열 의원은 “삼천천은 많은 시민의 운동 및 휴식공간이자 각종 문화행사의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임에도 공중화장실과 체육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명품 삼천 천변길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의 북쪽으로는 오송재, 서쪽은 기지재, 동쪽으로는 이중

호를 따라 시민의 복합휴식공간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남쪽의 삼천천은 가로 등 설치조차 미흡해 저녁에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며 야간 경관조명 사업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주시 삼천천 효자주민센터부터 삼천교를 지나 장교마을까지 이어지는 산책로에는 화장실이 한 곳도 없어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해서는 약 2km나 떨어진 시민의 힘터나 강변공원 등까지 걸어가야 하며 산책길은 부서지고 파손되어 정비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우범기 시장은 “최형열 도의원의 제안에 적극 동의 하며 명품 삼천 천변길 조성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기업자본 가축 사육업 진입 제한 제도적 장치 절실”

우리 농업·농촌의 핵심 산업인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기업 자본의 가축 사육업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권오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 진입 제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따르면 “국내 축산업의 총산액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45.1%를

권오안 도의원, 오늘 건의안 발의 차지하는 등 축산업은 우리 농업·농촌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축산법 제27조가 삭제되면서 기업들은 사료와 유분을 넘어 가축 사육 부문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축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육계와 오리 분야는 90% 이상,



원은 “기업의 가축 사육 진입은 필연적으로 규모화와 집중화를 더욱 가속

화하고 이는 가축 생산에만 전념하는 농가들을 몰락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농민들은 기업이 원하는 시기, 기준에 따라 기업이 제공하는 사료, 종축을 이용해 단순히 가축을 사육하고 출하하는 단순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축산계열회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화’, ‘기업의 사육업 진입 예고제’, ‘축산 진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경수 기자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는 제277회 제1차 정례회를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석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시 통학로 환경 개선을 촉구했고, 오병제 의원의 대표발의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이 채택됐다.

주요 일정으로 15일부터 2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및 안전심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이 있으며,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28일에 각 상임위원회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과 27~28일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회기를 마무리 한다. /김경수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